

한옥마을 콘텐츠 '널리'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체험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한옥마을의 체험 여행 콘텐츠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16일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연구원 동헌에서 전주한옥마을의 다양한 체험콘텐츠 홍보를 위해 구성된 '전주한옥마을 무한체험 유튜브버디'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주한옥마을 무한체험 유튜브버디는 지난달 모집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대부분 유튜브버디는 실제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경험이 있는 청년들로 구성됐다. 특히 시는 유튜브버디가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은 물론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니고 있어 한옥마을 체험여행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향교길과 한지길, 오

전주시, 체험콘텐츠 홍보

'무한체험 유튜브버디' 발대식

목대길, 최명희길, 어진길 등의 전주한옥마을의 숨은 골목길을 찾아다니며 상업화된 한옥마을 모습과 상반되는 고즈넉한 한옥마을골목길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가 발굴한 한옥마을 100대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보는 영상을 담아 소개하는 등 여행객들에게 한옥마을 체험여행을 홍보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김치담기 △가양수빚기 △떡메치기 △다도예절 △비빔밥 만들기 △판소리 배우기 △국무용배우기 △한지뜨기 △한지 인형만들기 △한지부채만들기 △생활도자기 빚기 △자수공예 △압화공예 등 전주한옥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생활공예체험 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한옥마을이 체험여행지로서 여행객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옥마을의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더욱 활발한 홍보를 위한 유튜브 버디도 양성해나갈 방침이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전주한옥마을은 다양한 체험콘텐츠가 넘쳐나는 여행지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한옥마을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국내 최고라해도 손색이 없다"면서 "전주한옥마을이 체험여행지로서 거듭 발전해 나가기 위해 체험콘텐츠의 발굴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주시가 대한민국 1등 글로벌 여행지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개소식과 2019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故 차일혁 경무관의 흉상제막 행사를 진행했다.

'6·25 후 애민정신 실현한 영웅의 뜻 기리며'

민갑룡 경찰청장, 전북청 방문... 국과수 합동법과학감정실 개소 '올해의 경찰 영웅' 故 차일혁 경무관의 흉상제막 행사도 참석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개소식과 2019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故 차일혁 경무관의 흉상제막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설치된 합동 법과학감정실은 경찰과 국과수 상호협력력을 통한 신속한 분석 업무 체계 구축과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17억여 원을 투자해 전북지방경찰청 관역수사대 건물 4층에 120평 규모로 설치된다.

합동 법과학감정실은 경찰 6명, 국과수 4명 등 총 10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 지문감정과 혈흔형태, 영상분석과 유전자분석, 알콜, 화학분석 등 감정을 담당한다. 이에 DNA 분석 소모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합동 감식 감정체계 구축과 전문분야별로 전담팀이 구성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법과학감정실은 국과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8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국과수 간 긴밀한 소통으로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이 과학수사 발전의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합동 법과학감정실로 국과수의 현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 경찰 영웅, 흉상제막 행사'는 전북경찰청 본관 1층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경찰 정신에 귀감이 되는 순직 경찰관을

선정하여 흉상을 건립, 국민과 경찰관의 추모공간으로 활용하고 경찰 영웅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다.

이 행사는 고 차일혁 경무관의 며느리인 김정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민주평화당 대표, 바른미래당 정문식,박주현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올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차일혁 경무관(1920~1988)은 6.25전쟁 당시 지리산 빨치산 공비토벌에 앞장선 전장영웅이다. 민족의 문화재를 지켜내고 동족상잔의 참상에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며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또한, 전쟁 후 불우청소년을 위한 직업 훈련을 설립하며 애민정신을 실현했다.

이번에 제작된 흉상은 2m 높이로 실제 인물의 120%로 축소해 청동과 화강석으로 만들었다. 기단 정면에는 공적용, 좌측 옆면에는 연혁을 새기고, 흉상 복제는 현대적인 복제를 택했다. /정디은 기자

'다함께 3.3.3 예방수칙 실천' ... 전주보건소 치매예방 교육

전주시가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지난 15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전주시민시니어클럽(관장 윤희순)의 일지리사업 참여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예방수칙을 알리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치매 바로알기(치매의 정의, 증상, 사례) △치매 예방 수칙 3.3.3 및 관리방법 △치매인식개선

동영상 상영 △전주시 치매안심과 사업소개 △치매예방체조 교육 등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특히 보건소는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식사·독서의 '3관(勤, 즐김 것)' △절주·금연·뇌 손상 예방의 '3금(禁, 참을 것)' △건강검진·소통·치매조기발견의 '3행(行, 행김 것)'을 의미하는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소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에 맞춰 △은름 자극하기

△순 운동 등으로 구성된 치매예방 체조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치매고위험군, 치매예방교육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도란도란 두뇌보육교실'을 주 2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복지관과 시니어클럽, 전주시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에 찾아가 '치매 바로알기'와 '치매 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85회에 걸쳐 진행된 '치매 바로알기' 교육에는 7691명이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생명존중문화 확산 노력

이경신·이윤자 전주시의원 주최 토론회 개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효치·2·3동), 이윤자(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노인, 치매가족 등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정책마련과 생명존중 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윤자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발제자인 강중대 예수병원 의사사회복지사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주제로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 등 인간 경시 풍조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인간의 도덕적 능력과 공감능력의 중요성 등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인간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경신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인구가 급증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의 자살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현숙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노인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성희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례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기 자살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소년기 자살 위험징후와 함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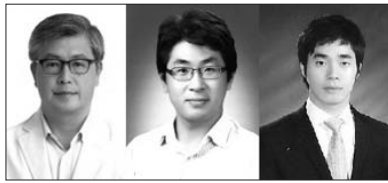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윤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캠페인 등이 추진되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암환자 항암치료 포트 삽입 연구 논문 '우수'

전북대병원 유희철·황홍필·정병훈 교수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간담췌이식환관외과 과 유희철·황홍필·정병훈 교수팀이 최근 열린 제38회 대한정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희철·황홍필·정병훈 교수(사진 왼쪽부터)

유희철·황홍필·정병훈 교수팀은 이번 학회에서 피하식 정맥 삽입 포트의 임상적 결과: 암 환자의 팔과 가슴 포트 비교에 대한 연구 논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간담췌이식환관외과 과 유희철·황홍필·정병훈 교수팀이 발표한 초록을 바탕으로 암환자들의 항암 치료를 위한 포트삽입에 있어 Chest port와 arm port에 대해 비교분석한 내용의 논문이다.

연구결과 암환자의 항암 치료 유지

를 위해 사용되는 Arm port는 Chest port와 비교하여 개존을 유지에 큰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 부위 염증 및 감염 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술 후 흉터에 있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Arm port의 유용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관련 수술에 있어 임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김윤상 기자

아파트 경비근로자 쉼터 제공

전주시, 내년부터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한 것은 경비업무 외에 청소, 주차관리, 수목정지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 8월 전주시역 56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398개 단지 중 경비실 휴게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251개 단지(63.1%)로 조사됐다. 특히 자체적으로 2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단지도 11개 단지에 불과하고, 경비원 휴게공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67개 단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단지 3~4개소를 선정해 경비근로자들의 안락한 쉼터가 될 휴게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2월 중 구청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회에서 지원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 '카본 컴포지트 투어' 개최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인 전주시에 세계 탄소기업인과 탄소소재 전문가들이 방문했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제14회 국제탄소페스티벌 & JEC Asia 2019' 행사에 참가한 6개국 30여명의 탄소기업인과 전문가들은 대상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 현안인 전주시 일원에서 '카본 컴포지트 투어(Carbon Composite Tour)'를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3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중인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을 관람 후 이날 전주를 찾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JEC그룹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대만,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의 탄소산업 기업인과 전문가 30여명을 행사 마지막 일정으로 전주의 유망 탄소기업과 최신 기술의 연구현장인 기술원을 방문하는 카본 컴포지트 투어를 진행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컴포지트 투어에서 참가자들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주)비나텍을 방문해 탄소소재를 적용한 슈퍼커패시터 등의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 국내 대표적인 탄소기술 연구개발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해 탄소복합재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첨단 탄소복합재 성형장비 시연을 견학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자연생태관 어린이 무료 입장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생태교육공간인 전주자연생태관을 주말과 휴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실내놀이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전주자연생태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11월부터 4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실내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 생태관 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시기에도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수능 후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합동 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11월 수능기간을 맞이하여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4일 서부신시가지 및 객사 주변에서 민·관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합동 캠페인은 전주완산경찰서와 경찰동아리 하이폴, 전주대학교 캠퍼스 폴리스 학생들 25명과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화사회복지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여 편의점, 음식점 등을 방문해 19세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및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도박문제관리 전북센터

대학생 명예기자단 발대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오남경, 이하 전북센터)는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 명예기자단을 선발, 15일 발대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제1기 도박문제 명예기자단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개월간 ▲전북센터 사업 및 서비스 소개 ▲행사 현장취재 및 리뷰 ▲도박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활동 다짐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도박문제 예방과 이해, 취재와 기사 작성법 등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